



THE GOSPEL NEWS

재일대한기독교회
선교 110~120주년
포여

함께 하는 생명의
장막을 넓히자

1963年9月20日 第3種郵便物認可 (毎月一日発行)

2024年10월1일 (화) 제842호

발행처 **복음신문사** (1부 100엔)
〒169-0051 東京都新宿区西早稲田2-3-18
☎03-3202-5398 info@kccj.jp
발행인 / 양영우 · 편집인 / 정수환
인쇄소 靑丘文化社

說教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시편8:편1-9>

전 일 광 목사 (미토교회)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름은 정말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 라고 부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까? 출애굽기를 보시면, 주님 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 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호칭을, '주'가 아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은, 나는 너희들의 존재의 근원이다, 너희들을 창조한 자이다, 라는 것을 알려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했으면 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다, 그렇게 소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이 지은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주여, 우리의 주여, 라고 몇 번이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 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 나이다' 부도, 권력도, 명성도, 모두 손에 넣었지만,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을 덮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이름이 온 땅에 알려져 있다, 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땅을 덮고 있다, 라는 것은 이 땅 어디에 있어도, 이 땅 어디를 가더라도, 주님이 계시 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에만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먼저, 돌이나 나무나 별이 있고, 그 이후에 신들이 찾아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늘도, 땅도, 덮어 버릴 정도로 충만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다윗왕은 자신의 작음, 인간의 덧없음을 느꼈 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광대함과 시간의 흐름을 생각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크 나큰 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나큰 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운세나 영적인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왜 인지 하나님은 인정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 를 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 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해 버린다는 것입니 다.

확실히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 에게는, 엄청난 지능이 있고 감성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과학기술이 인간의 손에 의해 탄생되었습니다. 어째서 인 간만이 이러한 엄청난 힘을 손에 넣은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과 힘을 주셨기 때문

입니다. 이 힘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본문6절, 7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 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람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닙 니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욕심과 감정으로, 주어진 힘과 기술을 잘못 이용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 기는커녕, 주위에 상처를 주고, 주위를 망하게 해 버린다는 것입니 다. 이것은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한정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 니다. 가정을 다스리는 것, 사람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드는 것도 자신이 하나님으로 굴림하고 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입 니다. 진정한 치유와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마음을 다스리고 인간관계를 평화로 이끌기 위해 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을 내 주님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우리를 창조만 하신 분은 아니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치시고 끝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 다. 이사야49:16을 보시면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 다, 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자신의 갓난아이를 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누구 한 사람 소외되는 사람은 없고, 잊혀지는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 음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과 부활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것, 우리는 여러가지 다양한 두려 움과 속박으로 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마음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령기 때문에 5절의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나라는 것입니 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무엇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가, 구원해 주시는가, 정말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주여 아버지여, 라고 부르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되 시는 하나님께 창조된 자 답게 주님께 택함 받은 자 답게 살고 싶어 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싶 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 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마음에 넘쳐 흐를 정도의 사랑과 기쁨 을 부어 주십니다. 내 마음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고, 참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韓日对照讚頌歌販売



韓国の新讚頌歌版です。交読文も韓日対照で掲載されています。

- B6版変型・1483ページ
- 価格：2,500円 (消費税・送料込み)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韓日对照聖書販売



各ページの左に韓国語(改革改正訳)、右に日本語(新共同訳)が掲載されています。

- A5版変型・1760ページ、革製
- 価格：4,000円(消費税・送料込)

※お求めは總會事務所へ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 '협약 체결 40주년 기념집회'



2024년 9월 16일(월) KCCJ·UCCJ가 '협약'을 체결한 KCCJ 오사카교회에서 40주년 기념집회가 개최되었다. 신대영 부총회장의 사회와 김필순목사의 중약으로 개회 예배가 진행되어 정시은목사와 구사카베젠지목사가 신명기 7장 6~8절을 한·일어로 낭독하고, 관서지방 성가대 연합회의 우렁찬 찬양후에 구모시카리 도시미 총회의장으로부터 "함께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성찬식은 장경태 부총회장과 후지모리 유우키 부총회장이 사식을 했다. 기념발제에서는 이청일목사(재일한국기독교회관 명예관장)와 사노 미치오씨(동경 순심대학교수)가 양교단의 협약 체결 경과와 배경을 말했다. 차세대에 의한 미니 발제에서는 이명충 목사, 아라이 유키목사, 아리즈미 와타루목사, 오이타 신목사로부터 양 교단에서의 체험이나 대처, 과제가 제기되었다.

폐회예배는 구로다 와카오 총회서기의 사회로 마가복음 16장

15절이 한·일어로 낭독되었고, 양영우 총회장이 "세계를 안고 선교하는 교회"의 제목으로 설교가 있었다.

이번 기념 집회에 있어서는 KCCJ 사무국의 김병호 간사, UCCJ 사무국은 아미나카 쇼코 총간사, 도우케 노리카즈 간사, 그리고 장소를 제공하고 섬긴 오사카교회의 교역자, 사무실, 여성회의 많은 분들의 심금을 기억하고, 40년간 쌓아진 모든것이 새로운 행보로 이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이 양교단에 있음을 함께 기도하고 싶다.

(보고 : 정수환)



구모시카리 도시미 총회의장



양영우 총회장



이청일 KCC 명예관장



사노 미치오씨 동경 순심대학교수



아리즈미 와타루 목사



이명충 목사



오이타 신 목사



아라이 유키 목사

특별기고

캐나다 청년 하기수양회에 참가하여



양 나 리 (오사카교회)

이번에는 캐나다 청년 이벤트에 참가하여 많은 새로운 친구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실력에 자신이 없었고 다른 참가자들과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긴장과 불안을 느꼈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벤트가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자신의 긴장을 풀며 참가자끼리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결과, 단어의 벽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풀 수 있어 깊은 교류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도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 언젠가 그들과 재회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벤트 기간 중에 토론토에 있는 한인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교회분들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점심에는 손수 만든 비빔밥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모두 식탁을 둘러앉아 일본과 한국의 역사적인 관계나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경위로 토론토에 이주해 왔는지 개별 배경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일한국인으로서 자신의 뿌리나 한국의 역사에 강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의 시간은 매우 귀중하고 마음에 남는 체험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분들은 내 개인적인 배경과 생각에 대해서도 매우 흥미를 가져 주셨고, 내가 안고 있는 의문과 생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자신의 뿌리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나를 위해 학교와 가정과 다른 또 다른 중요한 커뮤니티였고, 거기서 보내는 시간이 나를 위한 평화와 마음의 의지가 되는 것을 재확인했다.

한편, 일본에서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차세대를 담당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심각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통해 교회가 젊은이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며 커뮤니티를 활성화하는지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큰 수확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나 자신이 이 경험을 살려 자신의 뿌리와 믿음에 근거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의 깊은 연결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커뮤니티가 앞으로도 활기차고 차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역할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 100주년을 기억하며 ② 글렌 데이비스 목사 인터뷰

글렌 데이비스 목사 부부



3.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의 봉사에 대하여

①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는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목회를 하셨나요?

먼저 1968년부터 5년 정도 서남지방회 선교사로 목사가 없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청년회가 없는 교회에서 청년회를 열기도 하고, 사세보에서 전도소를 열었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캐나다로 돌아와 캐나다의 여러 교회를 방문하여 재일대한교회 선교에 대해 전하고 다녔습니다. 1969년 봄에 일본 후쿠오카로 돌아와 1972년부터 78년까지 후쿠오카교회 목사로 목회를 했습니다.

②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후쿠오카에 살고 있었는데, 어떤 회의가 있어 도쿄에 갔을 때입니다. 오윤태 목사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한국 이름을 대비수(大比秀)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또 하나는 한국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번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해봐라' 고 하셨다. 그때는 한국어로 설교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때 설교 제목은 '죄의 용서함' 이었습니다. 설교 후 동경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발음은 "죄" 가 아니라 "죄" 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장로님의 성이 죄(崔)씨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발음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후쿠오카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모임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을 말하면서 한 장로님에게 가벼운 스킨십을 한 적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가벼운 스킨십은 친근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있던 다른 사람이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장로님이 화나셨어요'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오해였죠.

목회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고 하면, 후쿠오카 교회에서 처음 목회를 하고 1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기도회를 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이미 수요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새벽기도회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들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지 물었더니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청년들은 한국말도 잘 모르고, 교회에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청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주일에도 쉬지 않고 매일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 캐나다로 돌아가, 1985년에 다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청년회에 있던 사람들 중 3명이 집사가 되었고, 1명은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배운 것도 있습니다. 서남지방회 목회자 모임이 후쿠오카교회에서 있었는데, 회의 후 재일동포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리오교회의 김형식 목사님이 그 문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고 말했죠. 나는 김형식 목사의 말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김 목사는 화를 내며 '당신은 역시 외국인 이네요. 외국인이니까 마음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돌아가시면 되네요' 라고 화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날 제 집에 묵고 계셨던 구마모토교회 김독삼 목사님에게 왜 김형식 목사님이 화를 냈는지 설명해 달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아침 일찍 오리오 교회로 가서 김형식 목사님에게 사과를 하러 갔습니다. 김형식 목사님은 유카타 차림으로 웃으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저의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생긴 불화나 문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이인하 목사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목사님으로부터 KCCJ 60주년을 맞아 선교기본정책 초안을 영어로 번역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초안을 읽으면서 매우 좋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사회정의, 이 두 가지가 복음에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전도 중심이었지만, 사회 정의와 자유와 화해가 전도 못지않게 우리에게 중요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15년간의 선교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사람들에게 가르친 것보다 가르침을 받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③ 재일대한기독교교회에서의 선교를 마치고 캐나다로 귀국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1978년 캐나다 장로교회의 선교부 간사로 부름을 받아 캐나다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초등학교생이었고 친구들이 모두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④ 재일대한기독교교회 교우, 장로, 교역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기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일본에 있는 재일동포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렌 데이비스 목사 가족과 안더슨 목사 가족



글렌 데이비스 선교사 후쿠오카교회 위임식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희생자 101주년 그리스도인 추도 기도회 성명서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요한복음20:19 공동번역)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십자가의 주님 앞에서 희생자들을 추도하고, 그 역사를 기억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추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100주년이었던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집단학살의 국가 책임에 대한 질문을 몇 번이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 측은 “정부로서는 학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였습니다.

1923년 12월, 제국회의에서 학살의 국가 책임에 대한 질문에, 당시 야마모토 곤베에(山本権兵衛) 총리가 ‘숙고한 뒤에 다른 날에 답변하겠다’, ‘정부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최종적으로 이 자리에서 답변하겠다’고 답변한 이후, 101년 동안 일본 사회는 국가 책임을 포기했고, 사회는 결과적으로 그것을 용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101년의 국가적 무책임의 현실에 항의하며, 이 역사에 대해 기독교회가 주님께서 맡기신 선교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101년 전의 그 대학살은 단순히 대지진의 공포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 30년 전부터 침략으로부터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는 수만 명의 조선인들을 일본군은 ‘조선 폭도 / 不逞鮮人(불순분자)’ 라고 부르며 ‘도벌’ 이라는 이름으로 학살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대일본제국의 수십 년에 걸친 조선에 대한 식민지(화) 전쟁과 함께 조선민족에 대한 적대감, 차별,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의심의 눈초리가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러한 가운데 ‘불순분자’ 혐오가 일본 사회에 퍼져나갔고, 마침내 1923년 9월 관동대지진으로 인한 조선인 학살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따라왔는지? 근대 일본 기독교회가 걸어온 길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악령처럼 번져간 학살의 광기를 피해 도망치는 조선인과 중국인들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복음의 말씀에 따른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한 교회의 역사적 현실을 깊이 참회합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의 정치가 또다시 전쟁 준비로 치닫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전쟁으로 가는 길은 그 사회에 적대감과 차별,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추모의 시간과 자리를 함께 나누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상처 입은 자의 이웃이 누구냐”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는 이 나라와 사회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모든 적대감과 차별, 그리고 두려움의 의심과 불신에 대항하고 극복하는 환대와 우애의 방파제를 세우는 선교적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의 결의를 다짐합니다.

부활의 주여, 오시옵소서. 평화의 영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당신의 사역으로 인도하소서.

2024년 9월 1일

관동대지진 조선인·중국인 학살 101년 추도기도회

참가자 일동

서부지방회 장년회 1일연수회 개최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란 전체주제 아래

9월 16일, 고베시 후루츠플라워파크에서 ‘2024년도 서부지방회 장년회 1일 연수회’가 히라노교회 김중권목사를 강사로 초청해서 개최되었다.

1부 예배는 장년회 회장 양창희장로의 사회로 ‘비전이 이끄는 인생’이라는 전체주제 아래 ‘후대전화와 교회(영적 전쟁)’ (마가10:46-52, 잠16:9)이라는 제목으로 김중권목사의 설교가 있었다. 메시지후, 후반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이용시의 편의성과 아울러 그에 따르는 위험성을 거론, 문명의 이기를 그리스도인의 분별력을 가지고 적절히 사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점심식은 바베큐로 모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2부는 백승호장로(고베교회)의 사회로 진행하여, 「노블레스·오블리주」라는 제목으로 강연이 계속되었다.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왕족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숭고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 그건 바로 사랑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고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었다. 그리고, 일본에서 믿음생활을 하는 베트남 청년들의 활기찬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되었다.

그 후에 가진 토론 시간에는 참가자들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간증도 있었다. 연수회 참가 인원수는 많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의미 있는 연수회였다.

(보고 : 임영재)



리도경희망그 김중기 명예목사가 소천 동경성시화 운동본부 공동회장을 역임



2024년 9월 8일,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 김중기 명예목사가 소천하여 동 교회의 구자우 담임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을 거행했다(향년 86세).

故김중기목사는 1938년 한국 부산에서 태어나 1992년 일본으로 건너와 1997년부터 다마그리스도교회 담임목사가 되었고, 2009년 그 교회를 은퇴했으나, 2010년 재일대한기독교회 東京日暮里교회와 합병하여 동경희망그리스도교회가 되면서 명예목사로 추대되었다.

그외 동경성시화(Holy Club) 운동본부 사무총장과 공동회장 등을 역임했다.

교토교회 한대룡 명예장로가 소천 교토신명학교 이사장 등을 역임



2024년 9월 9일, 교토교회 한대룡 명예장로가 향년 88세로 소천하여 교토교회에서 임명기 목사의 집례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故한대룡 명예장로는 1936년 한국에서 태어나 일본에 와서 1956년에 교토교회 전영복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1979년 장로 장립, 2006년 정년은퇴와 함께 명예장로로 추대됐다. 그 외 관서지방회 부회장, 교토신명학교 이사장, 향상사 보육원 원장 등 평생을 교토교회를 위해 봉사했다.